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삼 년 고개**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긍정적인 자세와 재치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주제** : 긍정, 재치

핵심어 **긍정, 재치, 고개, 시루떡, 장날, 돌멩이, 영감, 한국의 고개**

한국문화
• **목표** : 한국의 장날과 시장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장날(3일장, 5일장, 7일장), 상설 시장

한국어
• **목표** : 병이 났을 때의 소리 및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배운다.
• **단어** : 시름시름, 육신육신, 끄끄
• **표현** :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앓아누웠어요.
온몸이 육신육신 아팠어요.
마음을 끄끄 앓아요.





인사 나누기

배꼽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삼 년 고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날 어느 마을에 '삼 년 고개'가 있었어요.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삼 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삼 년 고개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를 어찌죠? 할아버지는 정말 삼 년밖에 살지 못하는 걸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삼 년 고개'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이가 무척 좋았지요.

날씨 좋은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영감, 오늘따라 맛있는 시루떡이 먹고 싶네요.”

“시루떡이 먹고 싶다고요? 마침 오늘이 장날이니 내가 가서 사 오리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특히 삼 년 고개를 넘을 땐 조심해서 살살 걸어야 해요.”

이 마을엔 넘어지면 삼 년밖에 못 산다는 삼 년 고개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장에 갈 때마다 항상 걱정했어요. 삼 년 고개를 넘어야 했거든요.

장에 간 할아버지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물론 할머니가 먹고 싶었던 시루떡을 제일 먼저 샀지요.

‘허허, 이러다 시루떡이 다 식겠군. 빨리 집에 가야겠어.’



이야기 들려주기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시루떡을 주고 싶어서 다른 날보다 급하게 종종걸음으로 걸었지요. 그런데 너무 서둘렀나 봐요. 삼 년 고개에서 돌부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째!”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집으로 갔지요.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영감, 왜 그래요?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묻자,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실은 집에 오다가 삼 년 고개에서 넘어졌소. 이제 나는 삼 년밖에 못 살게 됐으니 이를 어찌면 좋소? 흑흑…….”

“그, 그게 정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그만 병이 났어요. 할아버지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할머니처럼 시름시름 앓아누웠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할아버지가 삼 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어찌나?”

“혼자 남으실 할머니는 어땠고?”

마을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슬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아이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안에 계세요?”

할아버지가 겨우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옆집 아이가 죽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가 이 죽 좀 드시래요.”

“아이구,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삼 년 고개에서 넘어지셔도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뭐라고? 오래 살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일단 지금 삼 년 고개에 가셔서 한 번 더 넘어지고 오세요.”

“뭐라고? 이 녀석이 이 할아버지를 놀리는 게냐? 한 번 더 넘어지라니!”

할아버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화내시지 말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삼 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삼 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두 번 넘어지면 육 년, 세 번 넘어지면 구 년을 살 수 있잖아요.”

아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걸 왜 몰랐지?”



이야기 들려주기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삼 년 고개로 달려갔어요.

“자, 한 번 더 넘어지면 육 년을 살고! 또 넘어지면 구 년을 사네!”
할아버지는 두 번이나 더 넘어졌어요.

“아이고, 좋아라. 또 한 번 더 넘어져야겠네. 이제는 십이 년!”
기분이 좋아진 할아버지는 삼 년 고개에서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아이쿠, 벌써 스무 번도 넘게 넘어졌으니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겠네.
하하하.”

할아버지는 삼 년 고개에서 여러 번 넘어지며 크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삼 년 고개를 넘을 때마다 일부러 넘어졌지요.

그 후로 삼 년 고개는 원래 자기가 살 수 있는 나이보다 삼 년 더 산다는
뜻이 되었대요.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할아버지가 삼 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난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두 분 다 병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온몸이 ‘욱신욱신’ 아프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이제 삼 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꽁꽁’ 앓으셨을 테지요.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아누웠어요. 병에 걸리거나 마음에 근심이 있어 괴로울 때 ‘욱신욱신’, ‘꽁꽁’, ‘시름시름’이라는 표현을 써요.

할머니는 시루떡이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시루떡을 사러 어디에 갔나요?

네, 맞아요. 장에 갔어요. 옛날에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없어서, 사람들이 장에 모여서 물건을 사고팔았어요. 장이 열리는 날을 장날이라고 해요. 장은 3일마다, 5일마다, 7일마다 열리곤 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설 시장이 있었지요. 할아버지도 장에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할머니가 부탁한 시루떡도 샀어요. 여러분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본 적이 있나요? 한국의 장날과 시장 문화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삼 년 고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삼 년 고개에서 넘어진 할아버지가 삼 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병이 났어요. 하지만 옆집 아이가 찾아와 삼 년 고개에서 두 번 넘어지면 육 년을, 세 번 넘어지면 구 년을 살 수 있다고 말해 주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삼 년 고개로 가서 여러 번 더 넘어졌어요. 재치 있는 옆집 아이와 긍정적인 할아버지 덕분에 삼 년 고개는 넘어지면 오래 살 수 있는 고개라는 뜻이 되었답니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쫄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